

## 해수부, 중동 상황 관련 수산식품 수출업계 애로사항 청취

-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논의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3월 11일(수) 서울에서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요 중동 수출 품목인 김, 게, 어묵, 넙치 등의 수출업체 6곳과 수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5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하고,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에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수출업체에 피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중동 상황으로 대외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출업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창현 (051-773-5480)
	수출가공진흥과	담당자	서기관 김근영 (051-773-5481)